



Read the full book on: [10.1787/migr\\_outlook-2015-en](http://10.1787/migr_outlook-2015-en)

## 2015년 국제이주 전망

국어 개요

### 주요 경향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이주민 유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예비자료에 따르면, 2014년 OECD 국가로의 영구이주 규모는 430만 명으로 이는 2007년 이래 최초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수치로서, 그 규모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13년 OECD 국가로 유입된 전체 영구이주 가운데 가족재결합은 35%, 자유이동에 의한 이주는 30%를 차지한다.

수용 이주민의 수에 있어,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이주민을 받아들이며 이주민 수용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유럽연합은 미국이 2013년에 수용한 전 세계 이주민 수에 준하는 규모의 비유럽국 이주민을 동해에 수용했다. OECD 국가로 새롭게 유입되는 이주민 10명 가운데 1명은 중국 출신이며, 4.4%는 인도 출신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로부터 OECD 국가로의 이주민 규모는 전체에서 각각 5.5%와 5.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체 송출국에서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4년 OECD 국가의 신규 난민신청자 수가 90년대 이래 최초로 80만 명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4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5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예비자료 분석결과는 2015년 역시 난민신청자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본다. 주요 난민신청자 수용국은 독일, 미국, 터키, 스웨덴, 이탈리아로, 프랑스는 과거 오랜 기간 주요 난민자 수용국으로서 세번째 위치를 차지했으나 현재 6위에 머무르고 있다.

다수의 OECD 국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주 관련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는 다변하는 국제이주 양상과 정치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으나, OECD 국가들은 보다 선별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둘째, 투자자와 기업가의 유입을 선호하면서도, 관련 자격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셋째, 가족이주 절차의 일부는 완화되었으나, OECD 국가로의 가족이주는 여전히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지중해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단들이 도입되었으며, 다섯째, 외국인 노동자의 자발적 본국귀환을 장려하며 이들의 불법고용에 대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이주민과 원거주민의 노동시장 성과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최근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부터 미처 회복하지 못한 일부 국가들(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이주민이 원거주민에 비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종합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OECD 국 이주민의 평균 고용률은 원거주민과 비교하여 약간 증가했으나, 실업률에 있어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정 이주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조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오랜 이주민 수용역사를 가진 몇몇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삶 전반에 이러한 통합조치를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출신국에서 취득한 이주민의 자격 및 능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조치와 기본 기술이 부족한 이주민에 대한 평생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의료관련 종사자의 국제 이동성

전반적으로, OECD 국가로 이주한 의사 및 간호사의 수가 2004 년 이후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OECD 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일반적 증가, 그 가운데 특히 숙련노동자의 증가세를 반영한다. 최근의 자료들은 의료관련 종사자 이주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율로 미루어 보아 2000 년대 OECD 국가들에서의 의료관련 종사자 수의 증가는 상당 부분 이주민 유입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최대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송출국가인 한편, 유럽경제지역(EEA) 내 증대된 이동성으로 인하여 OECD 국가들 간의 의료관련 종사자의 이동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서국(島嶼國) 의료관련 종사자의 이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료관련 전문직 종사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를 따름 - 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보고되는 국가에서 OECD 국가로 이주한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2000/2001 년의 경우 출신국 필요 의료관련 노동력의 9%를 차지했지만, 2010/2011 년에는 20%에 다다랐다.

해외유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의학전공 유학생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이는 보건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일부 국가에서의 충족되지 못한 의료교육에 대한 수요와 또 다른 일부 국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요인이 맞물려 나타난 증대된 의료교육의 국제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이다. 향후 몇 년 동안 의학전공 해외유학 졸업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결과

*전반적으로 이주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경제위기 이전으로 복귀되었다.*

- OECD 국가의 전체 외국태생 인구는 2013 년 1 억 1,700 만 명으로, 이는 2000 년보다 3,500 만 명 (40%) 증가한 수치이다.
- 2014 년 예비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로의 영구 이주 규모는 430 만 명으로 2013 년과 비교하여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시적 이주에 속하는 대부분의 하위 범주에서도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 중국과 인도가 여전히 주요 송출국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내 증대된 이동성으로 인하여 폴란드와 루마니아 역시 상당한 수의 이주민을 배출하고 있다.
- 2014 년 OECD 국가의 난민 신청자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2015 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몇 가지 긍정적 조짐*

- 종합적으로 2011 년부터 2014 년 사이, OECD 국가 원거주민의 평균 고용률은 0.5 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주민의 경우 1.3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
- 외국태생 노동자의 실업률은 자국태생 노동자보다 평균 3.3 퍼센트 포인트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 OECD 국가들에서 이주민의 장기실업 상승세는 최근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주 노동력의 6%는 장기실업 상태에 놓여있다.

*의료관련 종사자 이주의 중요성 증대*

- 2000/2001 년 - 2010/2011 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태생 의사의 비중이(전체 23 개국) 평균 19.5%에서 22% 이상으로 커졌으며, 간호사의 비중도(전체 22 개국) 평균 11%에서 14.5%로 상승했다.
- 2010/2011 년에 OECD 국가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태생의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전 세계 모든 의료전문가의 5%를 차지했다.
- 2012 년부터 2014 년 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의 수는 전체 보건관련 종사자의 17%(26 개국 자료)를 차지했으며,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경우 6%(24 개국 자료)를 차지했다.
- 2000/2001 년 부터 2010/2011 년 기간 동안, 의료관련 종사자 수의 부족이 심각한 국가에서 OECD 국가로 이주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80% 이상 증가했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5),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doi: 10.1787/migr\_outlook-2015-en